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9시 / 11시

교회소식

12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김은희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이 땅을 위한 기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 94)

당신은 영광의 왕  
그 이름 임마누엘  
이 땅 위에 오신

만 가지 은혜를 (찬 216장 4절)

사도행전 24:1-9

평화의 기도

“인생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내 평생에 가는 길(찬 413)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2월의 공동기도는 “**이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지난 주일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종류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용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다음 주일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예산안 결의와 직분자 피택을 위한 **정기공동의회**가 12월 26일 주일 2부예배 후에 있습니다.
6. 2022년 **큐티책 연간 정기구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 : \$70 / 6개월 : \$35 (문의 - 박순정)
7. 중고등부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탄절 찬양을 준비**합니다. 시간은 12시 30분 - 1시 30분 입니다.
8. **삶공부 “생명의삶”**이 오늘 오후 1시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9.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2021년을 잘 보내기 위해

12월이 되면 마음이 분주합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2월이라고 특별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아닐텐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뿐입니다. 작년 12월은 코비드로 인해 시간이 정지된듯 그렇게 지나갔지만, 금년은 작년보다는 나은듯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면 이번 12월에 변화가 제법 있습니다. 사역조직에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사역신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사역 조직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이 청빙할 중고등부 사역자를 아직도 찾고 있지만, 그것을 비롯해서 사역자들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주한 12월입니다.

이런 바쁜 연말인데, 지난 10일 켄터키를 비롯한 미국 중부 여러 주를 강타한 터네이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을 초토화 한 것은 물론이고, 물류센터와 시설을 크게 훼손했으며, 사망자만 1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와 피해 손실액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엄청난 피해를 미국 중부 지역에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은 폭격을 맞은듯 보입니다. 당회에서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이번 성탄절 헌금의 이웃사랑 나눔의 일부를 그곳으로 보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2월은 어떠합니까. 2021년은 어떻게 잘 떠나보내고 있는지, 새로운 손님인 2022년이 잘 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어떻게 정리되며 청소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던 2021년을 통해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숙해져 갔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 드렸는지...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왕에게 보였던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란 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인생의 무게를 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벨사살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금년 삶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주님께 기쁘게 드릴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